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 도 자 료</h1>	2017. 3. 3(금)	
		작 성 · 문 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회관 김창식 / 사무관 이정환 (Tel. 044-200-2139)
* 즉시 사용			

이임 주한 베트남대사 접견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3(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하는 「팜 후 치(Pham Huu **Chi**)」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였다.
 - * 「치」 대사는 ‘13.10월 부임, 3.5 이임 예정

- 황 권한대행은 「치」 대사의 재임중 한·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연초 「푹」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 아울러,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향후 고속철·메트로·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도 일층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또한,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치」 대사는 푹 총리의 안부를 전하고, 베트남측으로서도 양국 지도부의 관심하에 금년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일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념사업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 재임기간중 본인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 특히 경제분야 실질협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왔으며, 현재 5,000여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이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철저히 준수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관련 베측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였다.